

가자와 길라드

이번 주 가자 지구의 거리에는 길라드 살리트의 석방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요.

2005년 여름 가자에서 철수를 한 이스라엘은 9,000명 상당의 주민과 군인들을 완전히 이주시켰습니다. 그 직후로 하마스가 통제권을 쥐게 되었고, 새로운 상황을 평화를 위해 선용하기는커녕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가자의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 6월 25일, 한 테러리스트 무리가 이스라엘-가자 국경을 넘어 다수의 군인들을 살해하고 길라드 살리트 상병을 납치했습니다. 2007년 10월, 가자 지구의 복음주의계 지도자 중 한 명인 라미 아야드 Rami Ayad가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2008년 동안 수천 발의 사제 로켓이 가자에서 이스라엘로, 민간 인구가 집중된 곳을 겨냥하여 발사되었습니다.

2008년-2009년 겨울의 하누카 절기에는 이스라엘이 “캐스트 레드 Cast Lead” 작전을 시행해 하마스의 군사, 유통, 행정적 역량을 멸하려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길라드 살리트의 석방 문제는 이스라엘을 괴상한 윤리적 딜레마로 이끕니다. 길라드를 데려오는 “협상”에는 유죄가 선고된 약 1,000명에 달하는 수감자들, 그것도 많은 경우에 “피로 손을 물들인 자들”의 석방 문제가 연루됩니다. 이스라엘은 길라드를 산 상태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떤 값이라도 치르려 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테러리스트를 풀어주고 나면 더 큰 인명 손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가자의 소망

가자 사람들, 또한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소망은 오직 메시아 예슈아를 통한 구원 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슬람 및 아랍 세계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데에, 저희 동족 이스라엘에게와 꼭 마찬가지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허나 저희에겐 그들에게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목숨을 걸고라도 무슬림들과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아랍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정 후원을 하고 그들을 위해 저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는 전도에 은사가 큰 아랍 사도 V 형제를 가자로 파송하는 일에 함께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V는 다음과 같은 사역 보고를 해왔습니다.

주께서 2009년 11월 26-30일에 행한 가자 지구로의 사역 여행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총 4번의 공개 집회가 가자 침례 교회에서 열려 175명 가량이 참석했습니다. 4일 동안, 45명의 남녀 종들이 주님께 삶을 드렸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2007년 10월, 가자 성서 공회에서 섬기던 30세의 라미 아야드 형제의 순교가 있는 후, 교회는 일종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후 약 6개월간 어떠한 집회도 없었습니다. 담임 목회자를 포함한

많은 활동적 성도들이 가자를 떠나기로 걱정했습니다. 진정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만 모임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아주 적은 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시간이 지나 약 25-30 명이 꾸준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의 부흥회 형식은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자 사람들에게겐 소망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전혀 없거든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자라는 하나의 커다란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삶이 정상적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 형제자매들에게, 그들이 버림 받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을 전부 가진 것처럼 큰 소망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참담한 이야기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한 자매는 40대 후반에 2009년 가자 전쟁으로 아들과 집을 모두 잃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철저한 빈곤 속에 살고 있으며, 일할 수 있는 인구 중 75%가 실직 상태입니다.

저희는 또 V의 사역에 감사하는 편지를, 가자 교회 지도자인 F로부터 받았습니다. (가자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편에 선다는 것은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은 주께서 큰 추수를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하누카(수전절)의 주제 중 하나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요 10:-15-18,22). 예슈아께서도 친히 죽음까지 신실함을 보이셨습니다.

빌 2:8 –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슈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사해졌습니다. 이것은 또한 예슈아의 본을 따라 우리도 죽기까지 신실할 수 있게 해줍니다.

빌 2:5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서머나 공동체에 전해진 편지가 우리를 권고합니다.

계 2:10 –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이 구절이 계시록에 있다는 것은 그 권고의 내용이 2,000년 전의 한 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외려 마지막 환란 동안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제자도의 중심 목적은 “메시아를 닮는 것”, 예슈아의 형상에 합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결과 사랑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능력을 닮아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고난, 또 죽음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빌 3:10 –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단지 순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순종과 이기심에 대해 죽는 것, 교만, 정욕, 염려를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위한 첫 번째 등장한 순교자는 스테반이었습니다(행 6-7). 그의 증거는 너무나 강력해 사도 바울이 전세계로 사역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유럽에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가정은 “스데바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고전 1:16, 16:17).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죄는 사해졌고 스테반의 삶의 증거가 그 죽음 이후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번 하누카 전야에는 길라드 샬리트와 라미 아야드, 가자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슬람 테러로 고통 받는 모두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를 올려 드리고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다시 “헌신”합니다.